

NEWS

한일경제협회 소식

CONTENTS

협회사업 상반기 개최실적

- 제33회 정기총회 & 회장단회의(이사회) ▣ 2014. 2. 18 ▣ 1
- 제46회 한일경제인회의 ▣ 2014. 5. 13~5. 15 ▣ 2
- 제1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 2014. 3. 18~3. 19 ▣ 7
- 제11회 한일경제협회 회원사 간담회 ▣ 2014. 3. 28 ▣ 12
- 한일의 제3국(미얀마) 공동 진출 ▣ 2014. 2. 24~2. 26 ▣ 13
- 일본 나고야 지역 방한 미션단 교류회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 ▣ 2014. 3. 21 ▣ 20

협회사업 하반기 개최안내

- 제21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 2014. 7. 27~7. 31 ▣ 22
- 제15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 2014. 9. 17~9. 19 ▣ 23
- 제21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 제13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 2014. 11. 25~11. 28 ▣ 24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하반기 주요사업 ▣ 25
- 한일축제한마당 ▣ 26

특집 [제46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주요 발표자료]

-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개회사 ▣ 27
-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개회사 ▣ 29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기조연설 ▣ 32
-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 연맹 회장 기조연설 ▣ 35

기획기사

- 한일경제협력 이렇게 풀어야한다 ▣ 39
- 한일관계, '정경분리' 원칙 지켜야 돌파구 생긴다 ▣ 43

신규 회원사 소개 및 회원가입안내

47

한일 통계

- 한일 교역·인적교류 현황 통계 ▣ 50

한일경제협회 소식 제30호

발행인 | 김 윤
 편집위원장 | 이종운
 편집위원 | 조덕묘·김정호·홍소영
 간사 | 서광현·이유경
 발행 |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서울시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31길18-4
 한일재단빌딩 4F
 TEL/ 02-3014-9888
 FAX/ 02-3014-9899

인쇄인 | 윤종우
 인쇄 | 웃고문화사
 서울시 중구 필동 23-1
 TEL/ 02-2267-3956
 FAX/ 02-2268-2361

한일경제협회 제33회 정기총회 & 회장단회의(이사회) 개최

- 김 윤 (주)삼양홀딩스 회장, 한일경제협회 제12대 회장으로 취임 -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회장: 김 윤(金 鈞)/ ㈜삼양홀딩스]의 제33회 정기총회가 2월18일 (화)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롯데호텔 36층 아스토 스위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장단회의에서는 김 윤 (주)삼양홀딩스 회장 및 김희용 동양물산기업(주) 회장, 이휘령 (주)세아제강 사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강호문 삼성전자(주) 부회장, 이종윤 (사)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정석현 (주)TCC동양 전무, 황호균 (주)내추럴리퍼블릭 부회장, 이일규 베스트웨스턴 회장, 이수철 (주)캡크로스 인터내셔널 회장, 최재호 삼남석유화학(주) 사장, 정수용 (주)빙그레 고문, 박정부 (주)한웰 회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주) 회장,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최민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박남숙 교세이국제특허정보(주) 대표, 이승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금번 회의에서 회장단회의 부의안건으로 2013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 33회 정기총회 개최(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회장단회의에 이어 계속된 이날 총회에서는 김 윤 (주)삼양홀딩스 회장을 한일경제협회 제12대 회장으로 새로이 선임하고, 그동안 협회발전과 한일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공헌해온 조석래 전임회장 [효성 회장]을 협회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였다. 한편, 협회부회장 임기가 만료된 서민석 부회장[동일방직 회장], 조양호 부회장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부회장 [롯데그룹 회장], 한동우 부회장[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이종윤 부회장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은 재선임 되었다.

아울러 2013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2014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협회의 사업방향으로 첫째 한일 관계 발전의 창구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별·지역별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둘째,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한일 통상 협력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



「제46회 한일경제인회의」 성황리에 폐막

—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로 —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간의 경제교류를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해 나가고자 1969년 설치 이후 매년 한번씩 양국이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한일 간의 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제46회째를 맞이하여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2014. 5. 13~5. 15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하였으며, 한국측에서는 김윤 단장 등 142명,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단장 등 162명 합계 304명의 경제인이 참가하였다.

한일 간 무역·투자 및 인적교류가 축소되고 상대국에 대한 친밀도가 약화되어 협력증진을 위한 국면 전환이 필요한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46회 한일경제인회의는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대한 지지 표명 및 경제계의 지원과 제3국에서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공동 진출 확대에 합의하는 등의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의 필요성 및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회의가 되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은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에 합리적으로 공동대처하여 21세기를 강력한 아시아의 세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역내 경제통합과 한일 하나의 경제권 형성 구제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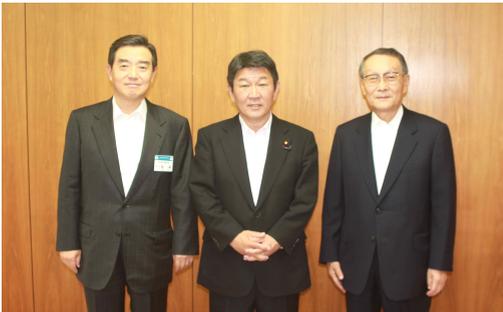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한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나가기 위해 함께 협력·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으로써, 향후 50년 미래지향의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다음 8가지 사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 ① 한일 FTA체결 촉진 및 한국의 TPP 참여지 및 서포트
- ② 제3국 글로벌 시장 공동진출 확대
- ③ 각 레벨에 상응하는 청소년 교류 사업의 계속 실시
- ④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공유 협력
- ⑤ 동북아시아의 국경을 넘어선 대기오염을 포함한 환경문제 협력
- ⑥ 고령화 사회 공동대처(예방의료, 간호, 요양보호)
- ⑦ 평창동계올림픽·도쿄하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협력
- ⑧ 문화교류 촉진

한편 한국측 단장단(단장 :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일행은 본회의 개최에 앞서 아베 총리 등 일본 정부부처 예방을 통해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 강화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민간 경제계 활동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총리 예방



모테기 도시미츠(茂木 敏充) 경제산업대신 예방



누카가 후쿠시로(額賀 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 예방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외무대신 예방



이병기 주일한국대사 주취 만찬



개 회 식 전 경





단장단 공동성명 심의



공동성명(안) 낭독하는 이종운 부회장·고레나가 전무



양국 단장 폐막식



폐막식 전경



공동 기자회견장 전경



양국 단장 공동 기자회견

제46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제46회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양국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2014년 5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측에서는 김 윤(金 鈞) 단장 등 142명, 일본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단장 등 162명이 참가하였다.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 이후 1년을 지나면서】

종래의 구미(歐美) 주도적인 세계경제질서에서 아시아로 그 무대가 옮겨가고 있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가치관을 공유하며, 서로 간에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

작년에는 한일 양국에서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밝은 양국 관계의 부활을 기대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도 냉랭한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로소 3월 25일에 한일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한일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한걸음 나아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은 첫 발걸음으로, 양국 경제인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시기야말로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경제교류를 비롯하여 문화·인재교류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지난 1년간 모든 사업들을 예정대로 실행하였다. 또한 양국 경제인은 앞으로도 한일 양국을 잇는 가교로서 양국 우호확대를 위하여 공헌해 나가기로 하였다.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로】

2013년 10월에 개최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역내 경제 통합을 추진해 나간다는 정상성명이 채택되었다.

지속 가능하고도 균형 잡힌, 강력한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일 양국의 존재와 역할이 필수불가결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양국 경제인은 이러한 목표를 향해 서로 긴밀히 제휴·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경제인은 일본에 이어 한국정부가 TPP 교섭 참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한일 양국에 의한 「하나의 경제권」 형성 실현과 아시아지역 전체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뜻 깊은 일로서 양국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며, 한일 FTA/EPA 체결추진과 병행하여 서포트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 향후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의 한일관계 구축】

1965년에 한일 양국 국교정상화가 실현된 이후, 내년인 2015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양국 경제인은 지금까지 50년간 한일 양국이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돈독히 신뢰 관계를 유지·확대시켜 온 선인들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의 한일관계 구축 실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향후 50년을 향한 구체적 시책】

(제3국 공동진출의 확대)

양국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비즈니스, 나아가 프로젝트를 창출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상호이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양국 경제인은 작년 1월에 인도네시아의 한일 공동 LNG 자원개발 현장을 방문하였다.

또한 연이어서 올해 2월에는 미얀마를 방문하였다.

미얀마는 아시아에서 성장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인프라수출 및 종합적 사회개발 협력 등 한일협력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뜻 깊은 방문이었다고 사료된다. 양국 경제인은 본 사업을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폭넓은 사업전개)

다가오는 50년을 짚어질 주역이 청소년들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이에 양국 경제인은 고교생·대학생·대학원생 등 각 레벨에 상응하는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국정부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새로운 50년을 맞이함에 있어 고령화 대책은 양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예방의료, 요양보호, 간호 등을 중심으로 정보공유·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자원이 부족한 양국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공유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고, 동북아시아의 국경을 넘어선 대기오염을 포함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50년을 향해서 폭넓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평창동계 올림픽·패럴림픽/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향해서)

올해는 한국 인천에서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된다. 그리고 2018년에는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패럴림픽이, 2020년에는 도쿄에서 올림픽·패럴림픽이 개최된다.

양국 경제인은 향후 50년 내에 한일 양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체전이 양국의 교류확대, 나아가 아시아 전체,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와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각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부에 대한 기대)

양국 경제인은, 앞으로도 「한일축제한마당」과 같은 풀뿌리 차원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양국의 관계개선을 위해 계속 진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민간레벨의 경제·문화·인재교류를 충실히 확대시키고 나아가서 더욱 진척시킴에 있어서 양국 정부에 의한 깊은 이해와 계속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바이다.

【차기 회의 개최】

다음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5년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1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지난 3월 18일(화)~19일(수), 일본 동경 HOTEL OKURA에서 제1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가 역대 최다인 82명의 일본시장 전문가가 참가하는 등,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한국측 대표: 한국무역협회 안종원 비상근부회장
[일본측 대표: 아소시멘트(주) 아소 유타카 사장]

동 회의는 한일경제인회의에 논의의제를 상정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로서, 강력한 아시아 경제통합의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한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나가기 위해 함께 협력·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회의 주요 논의 내용은 제3국 공동진출 협력 확대, 동북아 에너지·전력공유, 영양보호 협력 등 고령화 사회 공동대처, 평창 동계·도쿄 하계올림픽 개최 상호협력, 음악·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한일우호관계 증진, 공동자본시장 창출 등 금융분야 협력, 인력의 자유 이동 확대 및 기업 인턴연수, 한일경제협력지수 개발과 한일 협력사례의 언론 홍보 강화 등 이었다.

양국전문가들은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향후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의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제3국 글로벌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한일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3국 비즈니스 관련 협력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의사결정권자 간 미팅을 추진하는 것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한일 간 에너지협력을 위한 환경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한일 1만명 인턴 교류, 한일 경제협력 지수 개발 연구 등 한일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언이 있었다.

그밖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문화교류확대의 일환으로, 한일축제한마당 개최시 김연아·아사다마오 선수를 초청하여 한일우호의 상징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대외PR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들은 5월 14일(수)~15일(목),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된 「제46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상정되어 더욱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개회인사 안종원 চে어맨>



<이수철 코디네이터>



<(사)한일경제협회 이종윤 부회장>



<회의 전경>

제1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주요 논의 결과

① 제1세션 :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로

□ 일본측 발표자 : 후지야마 토모히코(藤山 知彦) 미쓰비시상사(주) 상근고문

「글로벌리즘과 아시아」

-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한·일·구미의 비율은 하향 추세에 있으나, 아시아의 비율은 증대 되고 있고, 또한 인구 비중도 높아져 아시아의 존재감은 증대되고 있는 상황
- 리먼 쇼크 이후 세계 경제는 선진국 재정 적자에 따른 성장전략 견인 실패와 금융제도의 개혁, 선진국의 저성장(상대적으로 신흥국의 고성장) 등에 의해 글로벌리즘이 요동하고 있음
- 세계의 메가(mega) FTA 교섭현황을 살펴보고, 아시아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발표

□ 한국측 발표자 :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유럽연합 통합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 전략」

1. 유럽통합 탄생의 배경과 경제통합 과정
 - 유럽통합은 산업, 정치, 법률,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국가 간 부분 혹은 전부의 통합을 의미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을 통해 유럽연합을 확대 발전시킴
2. 유럽연합의 미래 및 시사점
 - 경제동맹 관계에서 정치동맹관계로의 지향
 - 회원국 간의 신뢰 구축 등을 통한 글로벌정치 리더, 세계 최대 단일시 구축
3. 동아시아 경제통합 현황과 필요성
 - 경제성장은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역내 무역 동향
 -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의한 높은 거래 비용의 축소
 - 아시아 프리미엄 등 에너지 수입비용의 절감
 - 글로벌 경제구조 3각 경쟁체제(미국/NAFTA, 독일/EU, 중국/아시아)
4.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추진전략
 - 양자, 다자간 FTA 체결
 - 미국 및 일본 주도의 TPP(세계 GDP 40% → 사실상 한일FTA)
 - 중국 주도의 RCEP(세계 GDP 약24%) → 사실상 한중일 FTA
5. 한일 주도 자유무역협정 필요성 및 전략

② 제2세션 : 2015년 국교정상화 50주년, 미래지향의 한일관계 구축

□ 일본측 발표자 ① 이시아마 히로즈쿠(石山 博嗣),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한국미쓰비시상사(주) 사장

「제3국 공동전개의 가능성」 - 미얀마 시찰의 보고 -

- 미얀마 미션 개요
 - * 작년 인도네시아 동기·세노로 LNG프로젝트 시찰에 이은 2회째 미션
 - * 규모 : 48명(한국 19명, 일본 29명)
- 한일 협업 가능성이 높은 분야 : 제3국 플랜트 인프라, 자원·에너지
 - * 협업의 장점 : 투자리스크의 분산, 양국 정부기관의 자금원조·보험, 한국건설사의 프로젝트 관리 능력과 일본 메이커의 기술력
- 미얀마 시찰지 소개(티라와 공업단지, 티라와항, 다케다화학발전소)
 - * 미얀마 현장을 양국 경제인이 함께 시찰, 한일 양국의 협업에 관한 장점 상호 이해와 함께 향후 구체적인 가능성을 찾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

□ 한국측 발표자 ① : 최창희 (주)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 대표

「제3국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한일 협력 방안」

1. 한일 협력 배경
 - 한일 산업 협력의 확대를 위한 신규 협력 모델로서의 제3국 인프라/자원개발 등 공동사업자로서 추진이 필요
 - 강력한 컨소시엄 구성 등 제3국 비즈니스에 대한 한일 협력 필요성 증대
2. 한일 협력 모델
 - 한일 협력 모델로서 한국EPC 업체와 일본 메이저 상사 간의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제3국 진출 프로젝트 수주 확대와 경쟁력 강화
3. 한일 협력 활성화 방안
 - 한일 인프라 페어 개최, 제3국 비즈니스 분과별 간담회, 정보 발신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4. 한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
 - 한일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한일 연계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이 필수

□ 일본측 발표자 ② : 오카베 마사히로(岡部 正博), 아소개호서비스(주) 영업이사 본부장

「한일 의료개호의 현상과 향후의 협력」

- 아소개호서비스(주) 활동, 일본의 인구·고용·복지·연금·의료의 현상과 현재의 일본에 대해서, 일본 고령자 보건복지정책의 흐름과 의료 요양보호 보험제도의 실시상황, 의료·요양보호 보험제도를 둘러싼 한일 현황 등을 소개
- 의료, 요양 보호 예방과 주거, 생활지원이 일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약 30분이내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구축
- 요양보호관련 의료, 제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과제, 향후 한일 협력방안 제안
 - * 한국, 일본의 의료 요양보호 제후 추진을 위한 정보공유
 - * 기술지도 및 연수를 통한 인재교류 육성
 - * 제도, 선진기술, 정보통신기술화 등의 수출입에 따른 상호보완 관계 구축

□ 한국측 발표자 ② : 신정식 아주대학 대학원 교수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동북아 에너지 협력」

1. 동북아시아 에너지 이슈
 - 에너지 수요(특히 중국) 및 수입 의존도 증가
 - 동북아시아 각국의 분리된 개별 에너지 시스템과 에너지 외교경쟁, 정치적 불확실성
2. 동북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 동북아시아 가스개발 및 파이프 라인 네트워크 구축, 극동러시아 지역의 전력개발 등
3.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협력을 위한 정부간 기구
 -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협력에 관한 정부간 협력기구의 설립
 - 한일간 에너지 협력 환경 구축 (각국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아시아 석유 및 가스 가격 지수개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연계의 슈퍼그리드 구축, 원자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

③ 강연

□ 강연자 ① : 야마자키 히로시(山崎 弘)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상무이사

「일한재단 20년의 활동과 향후」

- 일한재단 사업 개요 ~ 20년간의 경위 ~
 - * 한국 중견중소기업의 산업기술력 강화와 향상을 위한 협력
 - * 산업기술인재육성, 생산향상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과 협력, 인재교류촉진, 조사연구 홍보 추진 등
 - * 과거 20년간의 한일무역추이와 재단 사업의 내용

- 한국중소기업의 과제와 제언
 - * 과제 : ① 결과·성과를 즉각 요구(프로세스 경시)
 - ② 모노즈쿠리 기본을 등한시
(3현주의 미비 : 現場, 現物, 現實 개선 활동)
 - ③ 기술·정보 공유가 낮고 조직력 부족
 - ④ 인재육성에 대한 투자부족
 - ⑤ 한일 간 기업연계·협업이 낮음
 - * 제언 : ① 모노즈쿠리 제도의 재구축, 프로세스 중시, IT구사
 - ② 인재육성 투자 급선무
 - ③ 한일기업연계에 의한 제3국 진출을 조기에 박차를 가해야
- 향후 일한재단의 전개 방향(한국경제발전, 예산 감소, WIN-WIN)
 - * 한일 관계 새로운 50년을 향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
 - * 한일FTA 조기체결, 아시아공동체(AEC) 발족 등
 - * 한일협력에 의한 제3국 공동진출 촉진, 양국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응, 청소년 인재교류, 기존재단사업의 정예화, 한일 양재단의 공동사업 확대 등

□ 강연자 ② : 우중원 사이타마대학 교수

「한일 1만명 인턴교류」 - 기업 입장에서 제언 -

1. 일본의 인력 현상과 인턴십 실시 상황
 - 일본에서 해외로의 유학생수는 2004년 이후 감소 추세
 - 일본은 1990년 이후 고용창출력과 혁신력의 저하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전반적으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해외 인턴십은 아직 적음(2011년 현재 약3천명)
 - 인턴십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기업 대부분은 수용 체제 미비를 들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함
2. 인턴십 실시에 따른 메리트
 - 경영관리자 스스로의 유연한 발상 함양
 - 창조적 인재의 육성과 확보
3. 1만 인턴십의 플랜
 - 인턴과 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제도설계 운영이 중요함
 - 또한 수치 목표의 설정과 공정과정 작성이 필요함
4. 지원체제의 구축
 - 기업의 계획과 경영자의 결단이 선결과제임.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독자 수용 체제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포트 할 수 있는 컨소시엄 차원의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차원의 지원이 중요함(상기 지원체제에 관한 인적, 재정적, 금융적 조치가 필요함)

□ 강연자 ③ : 오태현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한일경제협력지수 개발」 제언

1. 한일 경제협력의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표 개발의 필요
2. 한일경제협력지수 기본 구조(안)에 대한 설명
3. 한일경제협력지수를 공개함으로써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도록 함

제11회 한일경제협회 회원사 간담회 개최



2014년 3월28일(금), 서울 Trade Tower 51층 중회의실에서 제11회 회원사 간담회(일본시장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본 간담회는 일본시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일 간 이슈 등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정보를 제공하고, 협회·재단(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협회 자매기관)회원사, 무역협회 회원사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협회·재단 회원사, 한국 무역협회 회원사 등 총 65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종운 한일경제협회 상근 부회장은 한일 양국 경제의 변화는 상호간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며, 엔저 정책인 아베노믹스는 일본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수출 및 정책, 경제현상 등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본 정책방향과 변화를 지켜보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큰 관심사항이라고 언급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시장의 변화와 진출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효과적인 일본시장 진출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박상준 와세다대

학 교수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 진출 한국기업이 느끼는 일본시장의 최근 변화, 대일 무역의 최근 추이, 그리고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경제의 변화에 대하여 발표가 있었다. 박상철 교수는 일본 진출 한국기업이 느끼는 일본시장의 최근 변화로는 엔저인하로 가격 경쟁력 약화되었으며, 채산성의 악화, 반한감정이 악화되고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경기가 일본의 수출산업에 뚜렷한 실적개선이 있으며, 내수 경기 역시 호전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강연은 아베노믹스 이후 엔저의 심화, 일본경기의 상승세, 한국에 대한 친밀감 약화 등 일본시장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일본시장 진출방안 등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우리협회는 회원서비스의 일환인 ‘회원사 간담회’를 통해 한일관계에 저명한 국내외 인사의 강연 및 정보 제공, 협회 사업안내, 회원사의 요망사항인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회원사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여 보다 유익하고 발전성 있는 회원사 간담회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3E**

한·일의 제3국(미얀마) 공동 진출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 한국과 일본은 애증 관계다. 두 나라는 아시아에서 경제수준이 가장 높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역사 인식과 독도 영유권 등을 놓고 정치·외교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양국에서 보수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넘도록 정상회담조차 못 열고 있다. 한일 기업인들이 꼬인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나섰다. 경제협력으로 정치·외교적 난제를 풀자는 취지에서다. 양국 업체를 대표하는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제3국시장에 공동 진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달 24~26일 미얀마에 공동 조사단을 파견하고, 현지 세미나를 열었다. 삼성, 롯데, 한화, 효성 등과 일본의 미쓰비시, 스미토모, 미쓰이, ANA 등 주요 50여사가 참여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제3국에서 한일 기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지 진출 방안을 공동 논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미얀마 조사단에 참가해 지켜본 한일 경제협력 현장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정리 = 최인환 한경닷컴 국장>

고조된 한·일 갈등 풀어줄 해법
찾았다 ... <1> 한일 기업,
아세안시장 공동 진출로 '원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6시간 걸려 23일 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 도착했다. 미얀마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50여명의 한일 공동 조사단이 비행기에 내려 공항청사에 들어서자 삼성전자의 갤럭시 광고판이 반갑게 맞았다. 청사 내부 광고판은 삼성과 일본의 도시바 파나소닉 등 한일 IT기업들의 독차지였다.

양곤 시내를 오가는 차량들도 한국과 일본 차들이 점령했다. 비좁은 도로를 다니는 차량 대부분이 중고차다. 10대 중 8대는 오른쪽에, 2대 정도가 왼쪽에 운전석이 붙어 있다. 왼쪽 차량은 한국제, 오른쪽 차량은 일본산이다. 신한은행 등 한국계 은행 간판도 눈에 띄었다. 글로벌 기업들에 가장 늦게 문을 연 미얀마시장을 놓고 한일 기업간 시장쟁탈전이 이미 시작됐다.



◆ 제3국 경제협력으로 꼬인 정치·외교 풀다

양곤 시내 캐트리움호텔에선 24일 오후 한일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한 세미나와 교류회가 열렸다. '미얀마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한일 조사단' 소속 50여개사 대표, 양국의 기업 주재원, 일본공사 등 정부측 인사들도 참여했다. 기업인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국적을 떠나 경쟁사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의 깊숙한 뒷 얘기와 숨겨진 정보를 교환했다.

이날 세미나는 다카하라 마사키 JETRO

양곤사무소 소장의 ‘미얀마의 투자환경과 일본 기업 진출 동향’, 안재용 KOTRA 양곤무역관장의 ‘미얀마 투자환경과 진출 전략’, 메가 히데시 양곤 일본상공회의소장의 ‘일본 기업 진출 현황’, 모영주 네모건홍인터내셔널 대표의 ‘미얀마에서의 한중일 전략과 한일 협력 가능성’, 이도 미쓰오 미쓰비시상사 양곤 대표의 ‘티라와공업단지 개발 소개’, 박정환 대우인터내셔널 부사장의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사업 내용’, 이사야마 히로쓰구 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의 ‘미얀마에서의 한일 연계의 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부이사장은 “한일 기업들이 모여 미얀마에서 시장 조사와 협력 세미나를 연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며 “미얀마 시장에 한일 기업이 공동 진출하면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과잉 경쟁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레나가 가즈오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문부는 “50여명의 양국 기업인이 단체로 미얀마에 온 것 자체가 양국 경제협력사에서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한 뒤 “양국 관계

가 어려울수록 기업인들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 제3국 첫 공동 진출, 미얀마로 잡은 까닭

미얀마는 2010년까지 사회주의와 군부독재 시대를 거치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중 최악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됐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832달러에 불과하다. 라오스(1204달러), 캄보디아(852달러)보다도 낮다. 미얀마 최대 상업 중심 도시인 양곤도 중심지에서 10분 벗어난 동네에 들어가 보니 우리나라의 1950~60년 대의 생활 수준이었다.

미얀마는 2011년 3월 테인 세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개혁·개방과 민주화를 추진해왔다. 새 정부는 사회 인프라 개선과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적이다.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아세안 관계 조망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한 우 완나 마웅 르윈 미얀마 외교장관은 “미얀마 정부의 목표는 정치적 안정, 민주주의 사회로 정치적 전환, 국민의 사회·경제적 삶 향상”이라며 “민주사회로 체제 전환을 위해 굳은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얀마의 인구는 6200만 명을 넘는다. 가스, 철광석, 원목 등 천연자원도 풍부하다. 게다가 아세안과 중국, 인도 등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경제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이 열리고 있는 미얀마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달려가는 배경이다.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전문가들은 미얀마 투자 유망 산업으로 자원개발, 전력 및 상하수도, 도로 건설 등 사회 인프라를 최

우선으로 꼽았다. 외국 기업 진출을 겨냥한 호텔과 레지던스 건설, 싼 인건비를 활용한 봉제 및 섬유업, 프랜차이즈 외식업, 의류 및 화장품업 등도 전망이 밝다.

이시야마 한국미쓰비시 사장은 “천연자원과 인구, 노동력 등을 감안하면 봉제업이 가장 유망하다” 며 “ 투자비가 많이 드는 자원 및 에너지 개발사업에서도 한일기업 간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롯데자산개발의 김민근 상무는 “호텔과 레지던스 사업에서 한일이 협력하면 좋은 성과를 낼 것” 이라며 “일본의 금융자본과 한국의 건설기술이 합쳐지면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대기업간 과당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지에서 투자건설업무를 하고 있는 네모건흥인터내셔널의 모영주 대표는 “신규 프로젝트에서 한일 기업간 과잉 수주 경쟁으로 수주단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며 “양국 기업들이 사전 조율하면 현지 사업에서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조된 한·일 갈등 풀어줄 해법 찾았다 ... <2>한일협력, 미얀마에서 역사적 첫 걸음 내디뎠다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 한국과 일본은 애증 관계다. 두 나라는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수준이 가장 높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공통점도 있다. 하지만 역사인식과 독도 영유권 등을 놓고 정치·외교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양국에서 보수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넘도록 정상회담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한일 기업인들이 꼬인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나섰다. 경제협력으로 정치·외교적 난제를 풀자는 취지에서다.

양국 업계를 대표하는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제3국시장에 공동 진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달 24~26일 미얀마에 공동 조사단을 파견하고, 현지 세미나를 열었다. 삼성, 롯데, 한화, 효성 등과 일본의 미쓰비시, 스미토모, 미쓰이, ANA 등 50여사가 참여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제3국에서 한일 기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지 진출 방안을 공동 논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미얀마 조사단에 참가해 지켜본 한일 경제협력 현장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지난 24일 찾은 양곤 시내 쇼핑몰인 ‘정션스퀘어(JUNCTION SQUARE)’는 쇼핑객들로 붐볐다. 중국계 자본이 지은 4층짜리 쇼핑몰이다. 1층 패션 화장품, 2,3층 의류와 생활잡화, 4층엔 스마트폰숍과 서양식 푸드코트가 들어서 있다. 패밀리레스토랑에는 가족 단위의 현지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외식을 즐기고 있었다. 이날 오전 둘러봤던 1960년 대 수준의 변두리 동네와 비교하면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정도의 시간을 건너 온 느낌이었다.

2012년 민주화와 시장개방 이후 미얀마 경제는 달라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외자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비즈니스 맨과 관광객 등 외국인 방문객이 늘고, 중상류층도 나타나면서 소비시장도 급변중이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가운데 최빈국인 미얀마 소비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 한일 손잡고, 미얀마 경제발전 지원

요즘 미얀마에는 현지 시장과 해외 수출을 겨냥해 생산공장을 지으려는 한일 기업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미얀마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조사단’에 참여한 한일 기업들은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천연자원에 주목했다. 미얀마 1호 공업단지인 양곤 인근 밍가라돈공단도 일본계 자금이 투자됐다. 미쓰이물산이 60%의 지분을 출자했다. 한국 기업도 2개사 입주해있다.

공단 관리책임자인 하나 시게오 관리인은 “밍가라돈 공단은 양곤 중심지에서 23km, 국제공항에서 7km 지역에 위치하고 전력, 상하수도, 인력조달 등 입지여건이 좋



다”며 “한일 제조업체의 진출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외에 8개 봉제공장을 운영중인 한솔섬유의 엄진이 전무는 “미얀마 근로자의 평균 인건비가 중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싸다”며 “새 공장의 건설 가능성을 보기 위해 조사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엄 전무는 “밍가라돈 공단 입지가 좋으나 부지 가격은 비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둘러본 또 다른 공업단지인 티라와경제특구는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었다. 티라와경제특구 건설에도 일본의 3개 종합상사가 자본 참여를 했다. 일본계 기업들은 미얀마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티라와경제특구의 야나이 다카시 대표도 “양국 기업들이 미얀마의 경제발전 지원을 통해 민주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내년에 완공 예정인 공단에 한국 자본의 투자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도 사회 인프라 건설에 참여 중이다. 이날 오후 찾은 타케타화력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 현대건설, 하나대투증권, BKB 등 4개사가 주도하고 있다.

◆ 미얀마 소비자, 한일 제품 선호도 높아
양곤 시내 곳곳엔 외국인과 상류층 소비



자들을 겨냥한 대형 호텔과 쇼핑 및 외식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자가 머물던 차트리움호텔 바로 건너편에도 2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 공사가 한창이었다.

소비시장에선 일본 제품 선호도가 높다. 미얀마 경제권을 잡고 있는 화교 등 중국계 자본에 후발 주자인 한일 기업들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6개월째 시장조사를 하고 있다는 한화의 주진완 상무(미얀마 사업개발팀)는 “현지 주민들의 한국 이미지가 매우 좋다”며 “쇼핑시설과 부동산개발 등이 유망할 것으로 보고 투자처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고가 소비장에선 한국 기업들이 선전중이다. 롯데리아는 양곤 시내에 벌써 3개 점포를 열었다. 24일 둘러본 롯데리아 매장은 현지 주민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김성열 롯데건설 본부장은 “한국제품 인기가 높아 영업이 예상보다 훨씬 잘된다”고 소개했다.

시내 중심지의 쇼핑몰과 대로변에 문을 연 삼성 스마트폰 숍에도 현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인에겐 고가여서 수요가 많진 않지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물산의 장영준 상무는 “아직은 투자 리스크가 커 한일 기업이 협업체제로 진출하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며 “삼성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현지 사업을 확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조사단 한일 참가업체>

■ 한국측 : 삼성물산 효성 한화 롯데건설 롯데자산개발 대우인터내셔널 세아상역 한

세실업 한솔섬유 팬코 태광산업 한라 한일 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일본측 : 한국미쓰이물산 한국우에무라 한국스미토모상사 한국마루베니 도레이 ANA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스&리스 아사히카세히 산큐 신일본스텐레스공업 한국미쓰비시상사 미쓰비시상사 JETRO 서울사무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NHK 일간공업신문

고조된 한·일 갈등 풀어줄 해법 찾았다 ... <3> 한일 손잡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만들자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 한국과 일본은 애증 관계다. 두 나라는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수준이 가장 높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공통점도 있다. 하지만 역사 인식과 독도 영유권 등을 놓고 정치·외교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양국에서 보수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넘도록 정상회담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한일 기업인들이 꼬인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나섰다. 경제협력으로 정치·외교적 난제를 풀자는 취지에서다.

양국 업계를 대표하는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제3국시장에 공동 진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달 24~26일 미얀마에 공동 조사단을 파견하고, 현지 세미나를 열었다. 삼성, 롯데, 한화, 효성 등과 일본의 미쓰비시, 스미토모, 미쓰이, ANA 등 50여사가 참여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제3국에서 한일 기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지 진출 방안을 공동 논의한 것은 처

음 있는 일이다. 미얀마 조사단에 참가해 지켜본 한일 경제협력 현장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이종운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왼쪽)·고레나가 가즈오 일한경제협회 전무 대담>

“미얀마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한일조사단 방문이 성사될지 지난 1년 동안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양국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결실을 맺었어요. 양국 관계가 어려울수록 기업인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미얀마 공동 진출은 한일 경제협력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고레나가 가즈오 일한경제협회 전무)

“미얀마의 경제발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두 나라는 인프라 건설 등 미얀마시장에 공동 진출할 사업이 많습니다. 양국이 미얀마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경우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한 일이 과당 경쟁을 피하고 협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종운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한국과 일본의 재계를 대표하는 이종운 한일경제협회 부회장과 고레나가 가즈오 일한경제협회 전무는 미얀마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입을 모았다. 한일 정치·외

교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기업인들이 해빙의 물꼬를 트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일업계 대표 50여명이 미얀마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조사 활동을 마친 25일 저녁 양곤 시내 차트리움호텔에서 대담을 가졌다.

△미얀마 조사단 활동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 이종운 부회장= 한마디로 말해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 양국 기업인들이 경쟁 관계를 벗어나 현지에서 협력했다는 데 의의가 있어요. 특히 한국에 앞서 미얀마에 진출한 일본 기업과 정부 측이 유용한 투자자료를 한국 측에 제공해 큰 도움이 됐습니다.

▲ 고레나가 가즈오 전무= 점수로 매기자면 80점 정도로 평가합니다. 앞으로 투자를 진행해 실제로 성공할지가 관건입니다. 양국은 제3국에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시장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행사가 성사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 한일기업이 미얀마에서 협력할 분야를 꼽는다면.

▲ 고레나가 전무= 도로, 상하수도, 발전소 등 사회 인프라 사업이 유망합니다. 전력 분야는 양국 기업이 손을 잡으면 ‘윈윈’ 가능성이 큼니다. 의료 및 교육 시장과 엔지니어 등 현지 전문인력 육성도 필요해요. 아직 미얀마에는 법률 등 국가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 외국기업들이 투자하기에 리스트가 큼니다. 한일이 힘을 모아 미얀마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 이 부회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미얀마의 경제성장을 위해 숙련 노동자 및 전문가 등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양국이 현지

에서 인재육성 사업을 공동으로 펼치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함께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 경색된 한일 관계가 언제쯤 풀릴까요.

▲ 이 부회장= 세계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한일 문제도 잘 풀릴 겁니다. 선진국인 한일이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주변국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양국간 경제협력이 강화되면 정치, 외교 갈등 해결의 물꼬도 트일 것 입니다.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고레나가 전무= 꼬인 한일 긴장이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적극 중재에 나섰습니다. 양국관계 악화가 이어진다면 지구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요. 이웃인 두 나라가 함께 발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시아 각국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올해 한일 경제 전망은.

▲ 이 부회장= 양국은 산업구조가 비슷합니다. 엔화 동향이 한국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의 엔화 약세 추세에 맞춰 한국 원화도 적정 수준으로 절하돼야 해요. 환율

만 잘 조정되면 한국경제는 올 하반기 이후 점차 안정될 겁니다.

▲ 고레나가 전무= 달러당 100엔 선은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달 일본에선 소비세 인상이 예정돼 경제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디플레이션(물가하락)도 해결되고 있어요.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일본경제는 살아날 전망입니다. 일본경제 회복이 한국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경제공동체는 진전이 없습니다.

▲ 이 부회장= 한국과 일본이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서 힘을 합쳐 좋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 곳에서 결실이 나오면 국제 정세에 따라 동아시아경제공동체가 예상보다 일찍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국간 정치, 경제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으나 경제협력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 고레나가 전무=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 중심의 경제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가 중심이 됩니다.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 경제를 이끌어야 해요.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경제공동체를 향한 가시적 진전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일본 나고야 지역 방한 미션단 교류회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



우리협회는 재단법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함께 일본 3대 경제권을 이끌고 있으며 공업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인 일본 나고야 지역의 기업과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나고야 지역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난 3월 21일(금),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31F 모차르트홀에서 교류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총 41명이 참석하였다. [한국측 33명, 일본측: 8명]

금번 간담회에서는 일본 나고야 지역 미션방한을 통해 한국 측 관련 기관·기업과의 일본 나고야 지역 기관 및 기업과 네트워크 구축을 실행하였으며, 김현성 일본 주쿄(中京)대학 부교수의 나고야 경제권의 특징과 한일 경제협

력 가능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대구광역시에서도 참가하여 자료를 배포하고 다음에 대구를 방문할 경우 산업투어 제의를 하는 등 나고야 지역과의 교류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날 교류 간담회에서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웃나라로서 협력의 필요성이 높으나, 양국의 정치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가운데, 한일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지금, 금번 회의는 ‘나고야 지역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일본 나고야 미션단을 대표하여 호리에 토시미치 일한경제교류회 회장은 “정치적인 문제가 한국과 일본과의 경제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한일 관계를 민간 경제인들의 노력으로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미래 지향적으로 공생협력 우호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일본의 3대 경제권 중 하나인 나고야 지역과의 중소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한 금번 교류회 및 세미나를 계기로 양측관계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제21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개최

우리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글로벌 인재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활발한 경제교류를 추진하는데 기반이 되는 양국 청소년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리더양성을 위해 한일고교생교류캠프를 개최해오고 있다. 대한민국 창업진흥원,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일본 외무성, 국토교통성에서 후원하는 금번 제21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는 2014년 7월27일(일)부터 7월31일(목)까지 4박5일간 일본 동경 사이타마현 카와고에 프린스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일양국에서 참가한 100명 (한국측 50명, 일본측 50명)의 고등학생들은 혼성 10개의 팀을 구성하여, 4박 5일동안 합숙하면서 일본의 실물경제를 직접 경험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산업·교육·문화 등의 상품에 대한 비즈니스를 기획하여, 사업자금 피칭을 위한 사업부스를 설치하는 체험 프로그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양국학생 골든벨, 양국전통놀이 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다. 각 팀에는 한일 양국어가 가능하며, 비즈니스 교육과정을 이수한 멘토가 1명씩 배치될 예정이며, 캠프 진행시 양국 학생간의 의사소통 역할 수행 및 사업아이템 구상사업발표회 준비과정에서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캠프는 한일 양국 청소년들의 상호 이해와 교류 촉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강화에 공헌하고, 창업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미래의 국제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JE**



20th Japan/Korea High School Students Interchange Camp
2013.7.28 - 8.1 in Osaka, Japan

※ 제9회 한일학생미래회의 개최, 한국 대전

「2014년 8월 5일(화)~ 8월 9일(토)」

- OB회는 한일고교생 교류캠프 수료자들로 구성되어, 2007년 제1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로 제9회째를 맞이한다. 한일고교생 캠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앞둔 한국과 일본의 미래”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일양국의 여러 방면을 보고, 생각하여 나온 의견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여 한일 미래를 우호적으로 성장시키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조할 예정이다.

제15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안내

- 일본 이시카와현 -

우리나라 동해안 4개 자치단체 「대구·울산·강원·경북」와 일본 호쿠리쿠 「北陸3縣 : 토야마(富山), 이시카와(石川), 후쿠이(福井)」 지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15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가 2014년 9월 17일(수)부터 9월 19일(금)까지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개최된다.

양국 간 산업 협력을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양국이 교차하면서 개최하고 있는 본 회의는 한국과 일본 ‘이웃을 알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산업시찰 및 상담회를 실시하여 미래지향적인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가 될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 제14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요 ▣

일 시	2014년 9월 17일(수) ~ 9월 19일(금)
장 소	일본 이시카와현
규 모	약 80명(한국측 약 30명, 일본측 약 50명)
주 관	(사)한일경제협회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지향적인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 의료 융복합분야에 대한 양국의 협력 방안 논의 • 지역과 지방의 활성화

※ 참가문의 : 홍소영 과장 02-3014-9881

제21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 제13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안내

— 일본 큐슈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

2014년 11월25일(화)부터 11월28일(금)까지 제21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와 제13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가 일본 큐슈 나가사키현 북부에 있는 항만도시인 사세보시에 위치한 하우스텐보스에서 동시 개최된다.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는 한국과 일본 큐슈지역의 지자체·경제단체·기업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쌍방의 자본, 기술, 인재 등의 지역자원을 상호보완하여 ‘무역, 투자 및 산업기술의 교류확대’와 ‘지역 간 교류촉진’을 목적으로 양국이 매년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국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상무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이 2000년에 만든 정부간 중요한 3국 지역협력체제로 3국 환황해 지역 내 무역, 투자,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강화와 개방형 환황해 경제권 형성, 공동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이다.

두 회의가 같이 개최되는 만큼 한국, 중국과 일본 큐슈 지역과의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의를 심도 있게 할 예정이다. 

▣ 제21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 제13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요 ▣

일 시	2014년 11월 25일(화) ~ 11월 28일(금)
장 소	일본 큐슈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주 최	한국측 :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사)한일경제협회,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관련 단체기관
	일본측 :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 (사)큐슈경제연합회, (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지자체, 관련 단체기관
	중국측 : 상무부, 자치단체, 경제단체, 대학 등

▣ 주요일정 - 검토중

날 짜	주요 활동 사항
11/25(월)	한국, 중국대표단 출국
11/26(수)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
	제21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환황해총장포럼, 환황해 인재포럼, 상담회
11/27(목)	제1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본회의
	산업시찰
11/28(화)	한국, 중국대표단 귀국

※ 참가문의 : 홍소영 과장 02-3014-9881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하반기 주요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일시 / 장소
제조혁신인재육성	1. 기술인재양성 2. 창조적 제조혁신 인스트럭터 양성	1. 8월~10월(3개월/일본) 2. - 일본과정 : 3주(이론 및 실습 / 7월26일~8월12일), - 국내과정 : 1주(기업 파견지도 / 9월1(월)일~9월5(금))
한일소재부품 조달 공급망 구축	1. 한일산업기술페어 2. 2014 동경비즈니스 상담회 : 한일 양국 기업간의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대일시장진출 지원	1. 10월1일, 서울 롯데호텔 2. 7월16일(수)~7월18일(금) / 도쿄 시나가와 프린스호텔
일본우수퇴직 기술자 유치	1. 기업기술인재양성 2. 뿌리기술전문가 양성	1. 지원기간 : 1개월~7개월 2. - 국내과정 : 3일(경기도) - 일본과정 : 5일(나고야)
제조혁신 인스트럭터 양성과정	제조혁신 베테랑 퇴직기술자에게 제2의 기회를 제공	- 일본과정 : 7월25일(금)~8월12일(화) 도쿄, 교토 - 국내과정 : 9월1일(월)~9월4일(목)
환경경영인재육성	중소·중견기업의 환경 경영 능 력 향상	10월6일(월)~10월11일(토) / 일본, 키타큐슈시
모노즈쿠리연수 3차	일본제조업의 성점이 생산관리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일본 도쿄대학 모노즈쿠리 경 영연구센터와 협력하여 국내실 정에 맞는 생산관리 리더 육성 을 위한 연수	10월16일(목)~10월24일(금) / 한국, 일본(나고야)
한일산업협력사업 공모	한일간 산업협력 활성화 및 우리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지원 도모	사업수행 : 7월~12월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한국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시키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참가문의

- 전화 : 02-3014-9800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jc.or.kr/>

한일축제한마당

- 한국 서울 -

한일축제한마당은 지난 2005년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한일 우정의 해’에서 시작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매년 열리는 최대의 한일문화 교류행사이다. 본 행사는 수만 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가는 최대 규모의 한일 교류행사이다. 한일 문화교류, 시민교류, 청소년 교류, 지방 자치단체 교류 등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축

제를 통해’ 한일 문화의 차이를 더 이해하고 서로를 더 존중하는 계기가 되어, 어떠한 악천후에도 항상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주는 등대 같이 한일 우호의 상징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최하고 있다. 나아가 이 축제가 젊은 세대로 이어지고, 미래를 향해 더욱 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한일축제한마당 개요

일 시	2014년 9월 14일(일) 10:00~20:00
장 소	코엑스(COEX) 전시장 C홀
주 최	한일축제한마당2014 in Seoul 실행위원회
일 정	식전행사 <1부>공식행사 : 11:50~13:00 <2부>공연행사 : 13:00~17:50 <3부>공연행사 : 17:50~20:00

※참고 : ■ 2014년 한일축제한마당 행사의 세부 일정은 7월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omatsuri.kr/korean/>



제46회 한일경제인회의 한국측 개회사

(사)한일경제협회
회장 김 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금년 2월부터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맡게 된 김 윤입니다. 한일경제인회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양국 경제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경제의 불투명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한일경제협력이 절실하고 중요한 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걱정이 앞섭니다만,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의를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시고 우리 한국측 대표단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일본 대표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이소자키 요시히코(磯崎 仁彦) 경제산업 대신정무관님,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 弘昌)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님, 이병기 주일한국 대사님, 홍동호 경제공사님, 기조연설을 맡아 주신 누카가 후쿠시로(額賀 福志郎) 일한의원 연맹 회장님,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한국 대표단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 경제인 여러분! 최근 세계경제의 흐름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를 중심으로 큰 폭의 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해 일견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가 축소되기 바쁘게 신흥국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로존도 아직 디플레 조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중국경제도 성장둔화와 이에 따른 그림자 금융의 동요 등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경제는 극히 불안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경우 세 개의 화살로 일컬어지는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수출 및 소비심리 개선에 성공하였고, TPP 교섭 참가 및 2020년 동경 올림픽 유치 성공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 경제도 과도한 국가부채를 축소시켜 나가는 문제와 금융의 양적완화를 언제까지 지속시킬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 이후를 어떻게 연착륙 시킬 것인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듯합니다.

한편 한국경제는 적정수준의 외환보유고 축적과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지속 및 단기 외화차입비를 축소 등으로, 미국의 테이퍼링에 따른 국제 유동성 파동으로부터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및 가계부문의 높은 부채

규모로 인해 민간소비가 위축되어 있고 기업의 투자활동마저 부진한 상황이어서 경기침체 상태를 극복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정부는 창조경제의 가치에 잠재적 투자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이끌어 내어 민간 투자와 외국인 투자를 크게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가로막는 일련의 장애요인을 일거에 제거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구미경제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급속하게 아시아 중심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미의 경제성장률보다 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표시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아 지역도 구미지역의 EU나 NAFTA처럼 강력한 구심점을 만들 수 있다면, 한층 안정된 기반 위에서 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게 됨으로써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일이 그 추진주체가 되어야 하며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한일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일이 중심이 되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이 경제 공동체가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에 사람, 물자, 자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하나의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선결 과제라 하겠습니다.

한일이 명실 공히 흔들림 없는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양국 경제인들이 확고한 인식의 공유 위에서 명확한 추진과정과 목표를 설정하여 이 목표를 향해 한발 한발 추진해 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한일 기업 간에는 협력의 범위가 양국 간 협력에서 제3국 공동 진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협력 방안을 찾아 협력해 나간다면, 지금과 같은 해외에서의 과당경쟁을 피하면서 양국에 이익이 되는 성공적인 사례를 확대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의 축적이야말로 한일로 하여금 빠르게 하나의 경제권으로 되어갈 수 있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일본은 환태평양지역의 역내 경제통합을 진행시키는 TPP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TPP 협상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TPP 협상의 체결과정에도 한일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한국의 TPP 참여는 궁극적으로 한일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발생 시킴으로써 한일 간 교역 확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일 FTA 체결을 통한 하나의 경제권 형성과, 나아가 아시아 지역 전체의 경제통합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일 경제인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을 불과 반년여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21세기를 강력한 아시아의 세기로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 논의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지혜를 도출해 내었으면 합니다.

이번 회의가 한일 양국 기업인 간의 우의를 공고히 다짐과 동시에 이해를 같이하는 한 배를 탔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46회 한일경제인회의 일본측 개회사

(일사)일한경제협회
회장 사사키 미키오 (佐々木 幹夫)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이병기 주일한국대사님, 허창수 전경련 회장님 그리고 한국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 누카가 후쿠시로(額賀 福志郎) 중의원 의원 및 일한의원연맹 회장님, 이소자키 요시히코(磯崎 仁彦) 경제산업대신정무관님,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 弘昌) 일본 경단련 회장님, 그리고 일본측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 오늘은 바쁘신 가운데 제46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올해 3월에 취임하신 김 윤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서 방일해 주셨습니다. 일본측 단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회를 즈음하여 일본측을 대표하여 인사말씀 올립니다. 먼저 지난달 한국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해난사고로 앞날이 밝은 어린 고등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희생되신 것에 대하여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행방불명인 분들에 대한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하루 빨리 발견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일한경제협

회의 아주 소중한 선배님들께서 서거하셨습니다. 후지무라 마사야(藤村 正哉) 제5대 회장님, 세토 유조(瀬戸 雄三) 제6대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수교 4년 후인 1969년에 제1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한 번도 중단되는 일 없이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46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동경에서 개최된 것은 2000년 제32회 회의 이후 실로 14년 만의 일입니다. 이는 지방차원의 한일교류를 심화시키자는 취지로 지방도시에서 개최를 해왔던 데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만 2020년 동경올림픽 개최가 결정되고 내년이 한일 수교 50주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로 오랜만에 동경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일 관계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 25일 네덜란드에서 한일미 3국 정상회담, 최근에는 한일 국장급 회담이 다시 개최되었고, 국회의원들의 상호왕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씩 양국관계에서 얼어붙었던 눈이 녹기 시작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희 경제인들로서는 하루 빨리 양

국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 민간은 지금까지 구축해온 경제교류, 문화교류, 그리고 인적교류의 불씨를 결코 꺼뜨려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2015년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그 다음 50년을 겨냥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왔습니다. 한일 양국의 우호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선진국으로서 두 나라가 중심이 되어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점을 작년 서울 회합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올해 회의에서는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로’, 그리고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향후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이라는 이 두 가지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회의의 주제와 관련하여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일 두 나라,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연대에 대해서입니다. 작년 10월 APEC에서는 TPP 협상을 가속화하여 역내 경제를 통합하기로 한 각료성명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힘찬 아태지역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아시아의 선진국인 한일 두 나라의 연대와 협업이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들의 현안인 한일 양국의 EPA·FTA를 조기에 체결하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이 TPP 협상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는 것과,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한중일 투자협정과 같은 움직임은 환영할 만한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일 양국이 제3국에서 협업(Collaboration)을 하는 것입니다. 한일 두 나라

가 제3국에서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인프라 프로젝트 부분에 공동 진출하여 윈-윈관계를 구축하면서 현지국가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 이것은 제44회, 제45회 회의에서도 누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양국 경제인들은 함께 제3국으로 현장시찰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인도네시아 슬라비시섬에 갔습니다. 여기서 한일 두 나라와 인도네시아 기업이 LNG개발을 하는 현장을 시찰하였습니다. 또 올해 2월에는 공업단지 진출, 인프라 수출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시찰단을 미얀마에 파견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양국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앞으로도 기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한일 두 나라 공통의 과제인 의료·요양보호,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겨냥할 때, 저출산 고령화 과제는 한일 두 나라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고령화 대책으로서 의료, 요양보호 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요양보호 로봇과 같은 선진기술을 공유하는 등의 교류가 더욱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 두 나라가 어떠한 협력을 할 수 있는지, 내일 전체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만, 이는 대단히 중요한 테마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의 국경을 넘은, 이른바 월경성(越境性)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정보와 기술,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공조함으로써 공헌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계로서는 이 분야에서의 한일공조를 더욱 심화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적교류, 문화, 스포츠 교류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50년의 한일 두 나라의 관계를 깊어질 양국 청소년들의 교류와 청소년 육성에도 힘을 쏟아 왔습니다. 여러분의 협력 덕분에 지속해온 한일고교생교류캠프가 작년에 2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00여명의 고등학생이 참가하였으며, 많은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양국의 대학 연구실이나 공적 연구소 등에서 높은 수준의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 교류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양국 정부는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깊은 이해와 동시에 자금과 예산면에서의 서포트를 부탁드립니다. 문화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뿌리 교류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한일축제한마당을 양

국관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울과 동경에서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동경에서는 올해 9월에 히비야 공원에서 한일 양국의 먹거리 문화와 전통 연회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저는 일본측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민 차원의 교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미력하나마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교류입니다. 2018년에는 한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2020년에는 동경에서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두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경제계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과 협력이 가능할 것인지 앞으로 한국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나갔으면 합니다. 오랜만에 동경에서 개최되는 이틀 동안의 회의에서 여러분의 활발한 토의를 통하여 알차고 뜻 깊은 회의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개최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6회 한일경제인회의 한국측 기조연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허창수



안녕하십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허창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 주신 누카가 후쿠시로(額賀 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님, 이병기 주일한국대사님,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 弘昌) 경단련 회장님, 그리고 이소자키 요시히코(磯崎 仁彦) 경제산업대신정무관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기조연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님과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양국 기업인 여러분께 “기적의 50년을 넘어 희망의 100년으로 나가자”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양국이 어떻게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 50년 전인 1965년 6월 한국과 일본은 국교를 정상화하였습니다. 그 이후 양국관계는 적지 않은 굴곡이 있었지만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두 나라의 경제는 현재 상호 윈-윈의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며 새로운 아시아 시대를 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연자원 부

족의 한계를 우수한 인적자원과 도전정신으로 극복하였고, 눈부신 경제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두 나라의 GDP는 50년 전 당시보다 75배나 증가하였으며, 무역도 160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 두 나라간의 교역이 430배 이상 늘어났고 경제적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하에서 한국과 일본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양국의 성장을 견인해왔던 전통 제조업 분야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에게 시장을 내어주고 있으며,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의 발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두 나라 모두 저출산 고령화로 향후 경제성장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나라는 성장한계 극복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창조경제를,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한일 경제인 여러분, 양국을 둘러싼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협력의 전략과 방법 모두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인

들이 양국 협력의 질적 전환을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초기의 한일 협력관계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의 1세대형 협력이었습니다. 중국의 부상 이후에는 동북아 산업내 분업관계인 2세대형 협력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의의 경쟁과 협조를 통한 3세대형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세대형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양국 기업의 인프라 프로젝트 공동 수주, 자원의 공동 개발 등이 좋은 예일 것입니다. 또한 차세대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서도 두 나라의 강점을 결합하는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지화 및 제품화 능력, 일본의 기술력과 정보력 등 양국의 강점을 묶어낸다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양국 간 기술협력 및 공동 R&D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양국의 신성장을 견인할 사업 분야의 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국 경제계와 정부는 EU가 추진하고 있는 유레카와 같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흥시장에서의 협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흥시장에서 양국기업 간 과도한 경쟁과 불필요한 중복투자 등 비효율이 발생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일 간 경합구조를 견실한 협력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차세대 제품개발과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 양국이 함께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해 내는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 시대의 도래에 따른 한일 양국 민간경제계의 역할에 대해 제안 드리 고자 합니다. 그간 아시아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위한 아시아 경제공동체 추진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시아국가 간의 정치적 견해차로 인하여 경제협력과 통합에 대한 논의가 기대만큼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민간경제계가 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간 경제계만이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경제통합 논의를 가속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 경제계는 우선 한중일 FTA, RCEP, TPP 등 경제 통합 프로그램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 통합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아시아 차원의 상설 민간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U의 경우 유럽 35개국 41개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유럽이 EU내 민간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단련이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이 확대 발전된다면,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한일 협력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올해 초부터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이러한 논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 모두가 통일에 대한 의지가 확고합니다.

저는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에 일본 경제계

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 통일은 일본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은 북한의 군사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각종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보유한 희토류 등 풍부한 광물 자원의 개발은 일본기업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 경제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협력 방안은, 양국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결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경제협력을 만들어 가는 주체는 다름 아닌 양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과거사 문제로 양국 국민 사이의 호감도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국 정부와 경제계가 앞장서서 국민 간 이해도를 제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일경제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과, 한일축제 한마당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겠습니다. 또한 양국기업 간 인턴십 공유와 대학 간 공동

학점이수 등 인적 교류 프로그램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국 국민들 가운데에는 상대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이해와 호감이 깊어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 부문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 지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기업인 여러분,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가난, 허약체질, 교육의 결핍 등 열악한 여건들이 성공의 요인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가 양국 관계를 재점검하고 보다 나은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양국의 속담처럼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시련 뒤에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5년은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해입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의 100년을 맞이하기 위해 양국 경제계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회의가 양국의 긴밀한 협업의 시작으로 아시아 경제통합을 선도하고, 세계경제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6회 한일경제인회의 일본측 기초연설

일한의원연맹
회장 누카가 후쿠시로 (額賀 福志郎)



네, 방금 소개받은 중의원 의원이자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누카가 후쿠시로입니다. 오늘 일한경제협회, 그리고 한일경제협회의 사사키 회장님과 김 윤 회장님, 두 분 지도 하에 양국 경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토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 말씀에도 있었습지만, 사사키 회장님으로부터 얘기를 좀 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때는 기초연설이라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그냥 조금 긴 인사말을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일한의원연맹의 정치활동을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쪽 해왔습니다. 30년 동안 일한의원연맹 일을 해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발전을 위하여 제가 정치를 계속하는 한,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동안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땀을 흘릴 각오입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나라가 약 49년 전, 1965년에 국교를 회복했던 수교 당시와 비

교해 본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인들의 땀 흘려 일하던 모습, 그들의 노력, 거시적인 안목과 대국적인 안목, 국민들의 생활을 생각하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했던 선배들의 뜻을 기리면서 새로운 21세기 한일 관계를 구축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저는 아베 총리대신 친서를 들고 대통령 후보 시절의 박근혜 후보님을 만나 빈 적이 있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를 회생시키기 위해 양국의 지도자가 바뀌는 것을 계기로 좋은 재출발할 하자는 내용의 친서를 가지고 찾아뵈었습니다. 아베 총리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도 한일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지향할 것이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양국 관계를 구축했으면 하고 기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일국교를 정상화하고, 일본의 경제지원을 통해 한국이

전력, 항만, 지하철 등 여러 가지 인프라 정비를 하여 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대통령을 지내는 동안에 한국에서 새로운 경제발전과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대신도 20년 동안 경색되었던 일본 경제를 회생시켜서 다시 한 번 힘찬 일본 경제를 되찾아 아시아의 발전과 세계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소개되는 세 개의 화살, 대폭적인 금융완화, 기민한 재정출동, 앞으로 진가가 발휘 될 성장전략, 이 세 가지 화살로써 일본인의 국민의식과 경제인의 의식을 바꿔 앞으로 전진해나가자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두 나라의 지도자가 경제를 강화해서 서로의 국력을 증강시키고, 그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아시아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호국으로서 아시아의 길을 개척해나가자는 공통의 뜻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그 이후 두 분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껏 두 나라 한일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일 양국의 국장급 회담이 개최되고, 3월에는 미국도 함께 자리한 형태로 한일 미 정상회담, 의원교류와 경제인교류, 민간인교류 등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 가을에는 APEC과 같은 국제회의도 연달아 개최됩니다. 그래서 올 가을까지는 한일 두 나라의 정상회담이 실현되도록 그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나라의 우호개선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2차 대전 이후 한일 양국관계의 제1차 단계는 1965년 수교 이후의 여러 노력이며, 두 번째로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小淵 惠三) 前총리, 두 분의 회담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 국회에 오셔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한국정부와 국민은 2차 대전 이전의 일본의 아시아 침략,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크게 반성해야 하며, 역사를 직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2차 대전 이후의 일본이 평화와 민주주의, 자유주의에 의거하여 일심불란(一心不亂)으로 경제발전에 힘쓰고, 그 성과가 아시아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역사를 직시하고 서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부치 총리대신도 국회에서 문서상으로 한국국민에 대해 2차 대전 이전의 침략 행위, 식민지 지배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그 이후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새로운 문화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류 붐이 일본에서 일어났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듯이 수교 당시 10,000명에서 현재 500만명 이상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경제활동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은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50주년의 해입니다. 저는 제3스테이지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대신 시절에 새로운 협력관계와 국민신뢰 구축을 위해서 이 50주년이라는 해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

미에서 경제인간의 교류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그간의 경험과 여러 조건들을 반영해서 탄탄한 한일관계의 토대를 잘 깔고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경제발전은 정치적 안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일본의 2차대전 이후의 발전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의거하여 자유민주당이라는 당이 계속 정권을 장악하면서 일정한 정치철학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최근 20년은 일본정치가 불안정한 시절이었습니다. 총리대신이 1년마다 바뀌는 상황에서 정치가 안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거버넌스, 기업의 5년 후, 1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관점 혹은 계획화에 경영을 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치가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인 여러분들도 안심하고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도전을 해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민당은 3년 반이라는 야당시절을 경험하면서 왜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거품경제 붕괴 후 일본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었는가, 야당으로 지냈던 3년 반 동안 우리가 다시 정권을 되찾았을 때 자민당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과거와 똑같은 일을 한다면 새로운 지평선을 개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다른 방식을 도입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베 총리대신의 세 개의 화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방식은 금융완화와 재정출동 등 모두 고전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진가가 발휘 되어야 할 부분은 앞으로 일본의 성장 분야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도전을 하는 기

업과 창조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리스크 헤지를 잘 해 주어야 합니다. 정치가 안정이 된 상태이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토의를 하면서 신속하게성장 전략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 바로 올 해입니다. 경제 제1선에서 달리고 계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경제계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여 우리가 방향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이 경제인회의가 유익한 회의가 되어 양국의 정치 관계자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46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 개최되어 왔습니다.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치 분야가 정말 낙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11월에는 2년 만에 한일의원연맹 총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한국측 황우여 의원님이 회장이십니다. 한국과 일본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이더라도 두 의원 간의 연락만은 끊지 말고 정보를 교환하자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물꼬를 틀 것이냐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이 사태를 타계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원연맹의 역할도 이런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교라는 것은 정부의 몫이지만 의원외교의 일환으로서 경제인 교류, 민간 교류라는 형태로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셨던 것이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간의 노력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국민 간의 교류가 앞서 나가는데 비해 정치인 간의 교류는 낙후되어

있고 뒤쳐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데, 저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면 될 것인지에 대해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동맹국이고, 이 3국의 축을 탄탄히 만들면서 동시에 중국과도 협력관계를 만들어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한일 양국이 먼저 관계를 개선하고 원-원관계를 구축한 뒤, 미국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중국과도 협조를 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1세기의 위상을 앞으로 제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치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강력한 경제를 재건하여 한국과 더불어 아시아의 리딩국가로서 아시아를 이끌어 나가는 모양새를 갖추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길어졌습시다만, 여러분들은 경제인들이십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종사해 온 한 사람으로서 그 간의 저의 심정을 피력하였습니다.

가을에 APEC이 개최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대신의 한일정상회담이 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제계 여러분들께서도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늦었습니다만 세월호 해난사고로 희생을 당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행방을 찾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년 전 동일본 대지진 시에는 한국 국민들로부터 많은 성금을 전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군부에서도 많은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웃나라입니다.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돕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는 선택할 수 있지만 이웃나라는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각오를 하고 마음을 다잡아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웃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지원 하에 정치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기조연설까지는 되지 못합니다만, 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JE**

한일 경제협력 이렇게 풀어야 한다

<새누리비전 기자와의 인터뷰>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1992년 한·일 간 무역 역조를 시정하기 위하여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통해 탄생하였다. 당시로서는 산업기술력이 일본에 비해 현저히 뒤쳐져 있었기에 우리 기업들이 재단에 거는 기대는 매우 컸으며, 실제로도 동 재단은 우리 중소기업의 부품 소재 관련 기술력 향상과 대일 수출 증가에 공헌해 왔다.

“저희가 하는 일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일본의 기술자를 소개하고 그 기술력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R&D 활동에서부터 생산, 최종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합리화시키는 연수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이종윤 전무이사를 만나보았다.

이종윤 전무이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히토즈마시 대학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거쳐 2011년 1월, 동 재단 전무이사에 취임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교량 역할을 마다치 않았던 이종윤 전무이사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우리 기업과 경제 뿐 만 아니라 양국 간 정치·문화교류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일산업

■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냉각기입니다. 한일 양국 간 경제의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양국 관계가 원만하면 경제도 더 활기를 띠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라는 것은 양국 국민에게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양국 관계의 악화 속에서도 경제적·산업적 협력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와 중일 관계의 경색이라고 하는 정치적 환경이 경제 환경에까지 일부 영향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멀지 않아 정치적 환경도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봅니다. 한일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 이종윤 전무께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일(對日) 민간외교통이십니다. 이러한 정치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언(苦言)을 해주신다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만,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치문제와 경제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하자는 겁니다. 경제라는 것은 결국 먹고사는 문제이므로 어떠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한일 경제협력이 양국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역사문제나 영토문제 등의 정치적 문제를 너무 서둘러 해결하려고 해서는 오히려 더 꼬이기 쉬우므로 원칙적인 입장은 견지하면서도 다각적인 채널을 가동하여 상대의 입

장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일 간 기술협력 관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작은 규모나마 일본의 기술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산업현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재단의 경우 일본 기술자를 우리 중소기업에 투입하여 5~6개월 동안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로 인해 연간 60~70기업 정도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술 지도를 통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 개량실적을 살펴보면 경제적 성과가 투입예산의 50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아직도 우리가 일본 기술에서 얻을 것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일본 기술을 배우는데 그치지 말고 이러한 일본의 기술을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부품과 소재를 들여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대일무역역조를 확대시키게 되었습니다. 기술 국산화를 통해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 대일무역역조가 어느 정도인지

연간 200~300억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무역역조 문제를 문제삼을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국인데 반해, 일본은 무역수지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일경제관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역역조보다도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일 산업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양국이 심각한 과당경쟁 상태에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산업구조가 유사하다 보니 원-엔 환율에 따라 양국 기업의 명암이 갈립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해 엔화가 평가 절상(엔고)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때 일본 기업의 수출이 줄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반면, 1995년에 미국과 일본 간에 ‘엔저용인’이 합의되자 우리나라는 수출급락과 수입급증에 직면하였고, 이에 따라 1997년 경제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 경제가 IMF체제로 들어가자 일본도 같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던 동아시아 채권이 휴지가 되고 동아시아로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일본 기업들이 고사위기에 빠지고 적지 않은 일본은행들이 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한일 양국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더욱 더 긴밀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 그럼 양국 간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경제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은 EU를 만들 어냈고 미국은 NAFTA를 만들었습니다. 인접한 국가들이 하나의 경제 체제를 갖는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이 되면

역내 인적·물적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활용을 가능케 하고 시장을 그만큼 확대시키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일 모두 가공무역으로 성장해 온 국가로서, 안정된 해외 시장이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선진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하여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 설 필요가 있습니다.

■ 일본의 원천기술 이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일본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핵심 기술을 쉽게 주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회적인 접근을 통해 그들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부진에 빠져있는 일본 기업들을 M&A 하는 것도 하나의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양국 기술자들에 의한 공동 기술개발도 중요한 수단인 하나가 되겠습니다.

■ 재단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일본에도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이라고 하는 우리 재단과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있습니다만, 양국 재단 간에 적지 않은 영역에 걸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과 15일에는 한·일 경제인 300여 명이 모인 ‘제46회 한·일 경제인 회의’를 동경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한·일 경제인 회의는 양국 간 가장 큰 경제회의로,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에 관한 적지 않은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는 바, 이들 문제들의 해결과정에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 재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인지도는 낮습니다만...

제가 재단에 부임한지 3년 조금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로부터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뭐 하는 곳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우리의 활동을 있는 그대로 알리려는 노력을 한 결과, 저희 재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재단 사업 참가 경험을 통해 저희 재단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대국민 인지도 역시 점차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이 한·일 간에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을 국민들께 꾸준히 알려 나갈 예정입니다.

■ 재단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일본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보완 관계를 통해 성장한데 반해 우리는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한 관계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의 취약성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생산 기술을 중소기업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고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게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 특히 생산기술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생산기술을

접목시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일이 산업구조가 비슷한 관계로 엔화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기업의 수출이 적지 않은 장애를 받습니다. 양국의 산업구조가 유사하다 보니 원·엔 환율에 민감해지고 과당경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일본의 산업기술을 접목하여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일 간 수평적 분업을 확대시켜 나가면, 과당 경쟁의 극복은 물론 양국의 협력적 발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권과 국민에게 재단을 대표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한일 양국 간에는 여러 가지 이해 문제가

엮혀 있는데, 그 중에서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는 결코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와는 별도로 양국 간에 엮힌 경제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는 보다 합리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황사가 오면 한·일 양국이 다 같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함에 있어서는 한일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치문제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되,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한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경닷컴 제1회 일본경제포럼]

한일관계, ‘정경분리’ 원칙 지켜야 돌파구 생긴다.

“한일관계가 역사적·정치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자칫 양국의 경제적 문제까지 그 소용돌이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안 된다. 경제는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경제 논리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 한일 양국 경제협력의 제1원칙은 철저한 정경분리다.”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양국 경제협력의 해법을 ‘경제 논리’와 ‘정경 분리’로 정리했다. 독도·위안부 문제, 일본의 우경화 논란 등 양국 간 갈등에 매몰돼 경제까지 손을 놓아선 안 된다는 것. 전문가들은 감정에 치우친 선입견을 배제하고 양측이 합의 가능한 실용적 경제 교류부터 시작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런 접근 방식이 경색된 양국 관계에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이 주최하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도요타자동차, 숙명여자대학교가 후원한 ‘2014 일본경제포럼’이 10일 숙명여대 제2공학캠퍼스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살아나는 일본경제, 한일 경제협력 방안은’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날 포럼에선 양국 간 소통 부재와 극단적 인식 확산을 극복하는 미래비전 합의·공유, 한국의 선진국 도약을 위한 반면교사로서 일본경제의 장단점 인식, 새롭게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한일 통합 경제권’ 구축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 단계별 해법과 대안이 제시됐다.

◆ ‘한·일 하나의 경제권’ 과당경쟁 피하고 시너지 낸다

첫 강연자로 나선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2014년 일본경제 현황과 한일 경제협력 방안’ 주제 발표에서 “한일 양국이 정치적·외교적으로 불편한 것과 별개로 경제는 철저히 합리적인 관점에서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관계를 부부관계에 비유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이 부회장은 “한일 양국은 인접 국가로 오랫동안 지내며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같은 시장경제체제와 함께 유사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라며 “그만큼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한일관계”라고 말했다. 공통점을 지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가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못지않은 역내 경제협력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 부회장은 “유럽과 미국이 주도하던 기존의 구미 경제 체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체력이 떨어졌다. 이들의 공백을 대신해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존재가 필요한데,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며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해 동아시아 공동체의 중심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일 양국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될 경우 발생하는 이점으로는 △제3국에서의 과당경쟁 방지, 생산기지 리스크 분산, 한일 기업 주도 표준화, 제3국 공동진출, 비교 우위를 살린 시너지 효과 등을 꼽았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제3국에서 격돌하면서 과당 경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며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이 되면 출혈 경쟁을 피하고 비교 우위에 의해 산업을 특화할 수 있다. 한국의 순발력, 일본의 계획성 등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보화 시대에 표준화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한일 양국의 기술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국제 표준을 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내수 규모이므로 양국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면 확실한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회장은 “제3국에 공동 진출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국방 문제에 따른 생산기지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저항이 적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계부터 차근차근 교류를 활성화 해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국 간 장기체류가

가능한 ‘노(NO)비자 그룹’ 확대, 공동 테크노마크 설립을 비롯한 양국 연구자·기술자·기능인력 데이터베이스화 등이다. 이 부회장은 “한일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는 역사적 정치적 외교적 과제에 얽매이면 양국 관계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다. 유럽은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EU를 만들지 않았느냐” 며 “이미 협회 차원에서도 양국 경제인들이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자는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경제 문제는 철저히 경제 논리로 접근해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일본 인식 경직돼... ‘경제가 출구’ 발상의 전환 필요

“한일관계 경색은 소통의 부재와 극단적 상호인식의 확산 때문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반드시 역사인식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만 경제협력을 포함한 교류에 나설 수 있다는 건 위험한 생각이다. 오히려 철저한 정경 분리를 통해 경제협력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다른 여러 갈등요인이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대학교 이원덕교수>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연구소장)는 한일간 갈등의 구조적 배경을 정확히 분석해 ‘각개격파’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극대화된 양국의 서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나 ‘뭉뚱그려진 인식’이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얘기도. 그는 “우리의 일본

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일본은 우경화·군국주의화와 같은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아베라는 극우적인 지도자가 이끌고 있다는 식으로만 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지나치게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파악하는 것은 문제다. 각각의 사안이 갖는 나름의 논리와 배경을 분석해 대처해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예컨대 일본의 집단자위권 도입은 최근 미일동맹 차원의 안전보장정책이나 센카쿠(다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대립 등의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모든 사안을 일본의 우경화나 군국주의화와 연결시키면 마땅한 해법이 없고, 끝내 관계 경색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최근의 한일관계 경색은 단순히 양국 간 관계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동북아 지역 국제체제의 변동 속에서 분석할 때 제대로 전망이 드러난다.”며 “중국이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상대적으로 일본의 힘이 쇠퇴했다. 크게 보면 냉전 시기 한·미·일 동맹이 현재의 ‘미중 양강구도 속에 갇힌 한일관계’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관계의 조정능력이 최근 들어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는 “1965년 국교 수립 후 한국과 일본은 막후 조정이나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타협해 왔다”면서 “최근 양국 간 인적 네트워크가 크게 약화되면서 특수했던 한일관계가 보통의 이국 관계로 변화했다. 갈등 발생시 문제해결능력이 저하됐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들어 단 한 차례도 한일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그는 “역사인식 문제 등 갈등이 해결돼야만 정상회담 한다는 건 ‘입

구론’이다. 거꾸로 ‘출구론’의 관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필요성도 있다”며 “우리가 정상회담에서 무라야마 담화 계승을 제안할 경우 일본 측이 거절하기 쉽지 않다. 아베의 폭주를 제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또 “일본에선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이른바 ‘중국 경사론’ 때문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며 “한국은 중국을 빼놓고 경제적 미래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지만, 내수경제 중심인 일본은 이를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어필하고 다방면으로 오해를 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그는 특히 △역사인식 문제 등과 경제의 분리 △아베 정부와 전체 일본의 분리 △정상회담과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한 노력의 분리 등 ‘3대 분리외교’를 당부했다. 이 교수는 “한일수교 50주년을 맞는 내년을 기점으로 양국 간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21세기 한일 신시대 선언 2015’(가칭)가 채택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원칙·기초체력’ 일본경제 강점 객관적 파악·수용해야

도쿄 특파원을 지낸 최인한 한경닷컴 뉴스 국장은 일본경제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 한국의 선진국 도약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디어가 일본에 대한 감정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잣대로 바라봐



<한경닷컴 최인한국장>

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국장은 일본경제의 강점을 원칙이 중시되는 매뉴얼 사회, 제조업 기반의 튼튼한 기초체력, 장기적 경영 등에서 찾았다. 그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3년이 훨씬 지났지만 NHK는 지금도 지진 현장을 찾아가는 기획 프로그램을 매일 방송하고 있다. 당시엔 사고를 겪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볼 수 있듯 원칙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던 한국은 이런 태도를 되새겨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지진 당시 현지 취재를 한 최 국장은 “국내 보도는 대부분 ‘일본 침몰’, ‘일본 열도 가라앉았다’ 같은 비관적 톤이었고 일본 경제가 입는 타격도 엄청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며 “하지만 직접 목격한 일본은 특유의 장점인 질서의식, 공동체 의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었다. 잠깐 세계1위 자리를 내줬다가 되찾은 도요타처럼 일본 기업들도 힘을 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 역동적이고 임기응변에 강한 장점이 있는 반면 확률이 낮은 위험 요소는 무시하는 면도 있다. 그런 성향이 세월호 참사를 부른 것”이라며 “일본과 같은 매뉴얼 위주, 원칙 중심 사회였다면 세월호 사태에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본다.”고 꼬집었다. 최 국장은 또 “한국

기업은 성장 지향적인 반면 일본 기업은 ‘영속(永續)’을 중시하는 차이점이 있다. 그런 문화 차이가 삼성이 단시일에 일본 유수의 대기업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했지만, 반대로 한국의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경제위기에 약한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단기 실적이나 주가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구조가 과연 좋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은 연구·개발(R&D)의 기초가 탄탄하다. 실제로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제조업 강국에서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며 “이런 기초체력 때문에 일본경제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차이나 리스크’가 될 수 있어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도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최고점을 찍은 1990년대 초반만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한국경제를 앞선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 그는 “무조건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실체를 제대로 알면 한국의 미래도 보인다. 규제가 많고 폐쇄적인 일본의 약점은 버리고 강점인 R&D 기초체력이나 장인정신, 매뉴얼 사회 등의 강점은 취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처음 열린 일본경제포럼은 향후 세부 분야별 주제를 정해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일경제협회 신임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 신규가입 회원사

* 신임 회장

■ (주)삼양홀딩스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
- U R L : <http://www.samyang.com/>
- 종업원수 : 2,900명
- 업 종 : 식품, 화학, 의약, 사료, 무역
- 생 산 품 : TPA, 폴리카포네이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부품, 사무용품, 제약, 제지, 섬유, 화장품 등

김 윤 회장

* 신임 부회장

<p>■ (주)LG상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 http://www.lgicorp.com ○ 종업원수 : 670명 ○ 업 종 : 자원개발, 프로젝트, 무역 ○ 생 산 품 : 석탄, 석유, 비철, 판오일, 석유화학, 철강 <p>송치호 대표이사</p>	<p>■ (주)GS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98번지 ○ http://www.gsenr.com ○ 종업원수 : 415명 ○ 업 종 : 열병합발전소, 국내 및 해외발전 사업, 자원개발사업, E&P사업, 신에너지사업 등 ○ 생 산 품 : 전기가스 <p>하영봉 대표이사</p>
<p>■ (주)포스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4동 892번지 ○ http://www.posco.co.kr ○ 종업원수 : 17,623명 ○ 업 종 : 제철업 ○ 생 산 품 : 열연제품, 후판제품, 선재제품, 냉연제품, 저기강관, 스테인리스스틸제품 <p>권오준 대표이사</p>	<p>■ (주)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0 ○ http://www.hyosung.com ○ 종업원수 : 7,932명 ○ 업 종 : 변압기 제조업 ○ 생 산 품 :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감속기, 폴리에스테르사, 나일론사, 스펀덱스원사, 테레프탈산 등 <p>조현준 사장</p>

**** 신임 상임이사**

■ (주)팬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96
○http://www.panko.co.kr
○종업원수 : 265명
○업종 : 섬유, 의복, 모피
○생산품 : 봉직, 무역, 임대

최영주 회장

■ (주)삼진엘앤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기흥로 64-17
○http://www.samjin.co.kr
○종업원수 : 203명
○업종 : 전자제품 제조업
○생산품 : 디스플레이 부품, 2차 전지 및 OA제품, 자동차 부품 외

이경재 대표이사

■ (주)동화엔텍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575-6
○http://www.dh.co.kr
○종업원수 : 320명
○업종 : 기계, 조선, 자동차, 운송장비
○생산품 : 조선용기자재외

김강희 대표이사

■ (주)화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 6로 60
○http://www.fine-tec.com
○종업원수 : 120명
○업종 : 화학, 고무, 플라스틱, 기계
○생산품 : 공장자동화(세척기, 조립기), 환경사업부(원심분리기, 전기침투탈수기), 신소재

이상준 대표이사

■ 협회 상임이사이신 (주)캠크로스 인터내셔널의 이수철 대표이사님께서는 (주)MK KOREA의 회장님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 신규 가입 일반 회원사**

■ (주)알에프윈도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182-4
○http://www.rfwindow.co.kr
○종업원수 : 101명
○업종 : 전기장비
○생산품 : 통신장비(중계기)OZ, LED 생산 설비

전영철 대표이사

■ (주)케이탑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1길 9
○http://www.ktopreits.co.kr
○종업원수 : 15명
○업종 : 부동산업
○종목 : 부동산매매, 임대, 관리, 판매

이명식 대표이사

■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98번지
○http://www.gansam.com
○종업원수 : 581명
○업종 : 기타 서비스업
○생산품 : 건축설계 (진시, 현상, 실시설계)

김자호 대표이사

■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3
○http://www.leeinternational.com
○종업원수 : 380명
○업종 : 법무, 회계
○생산품 : 서비스

김성기 대표변리사

■ 핸즈코퍼레이션(주)



승현창 회장

-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884
- <http://www.ahndscorp.co.kr>
- 종업원수 : 1,313 명
- 업 종 : 철강, 금속
- 생산품 : 자동차 휠

■ 한국SMC공업(주)



선석문 대표이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 <http://www.smckorea.co.kr>
- 종업원수 : 600명
- 업 종 : 제조업
- 생산품 : 공기압부품 및 실린더

■ (주)동하캐스트



정완현 대표이사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18-1
- <http://donghacast.com>
- 종업원수 : 27명
- 업 종 : 비금속광물
- 생산품 : ssd케이스, led히트싱크, 휴대폰부품, 자동차부품 외

[부~~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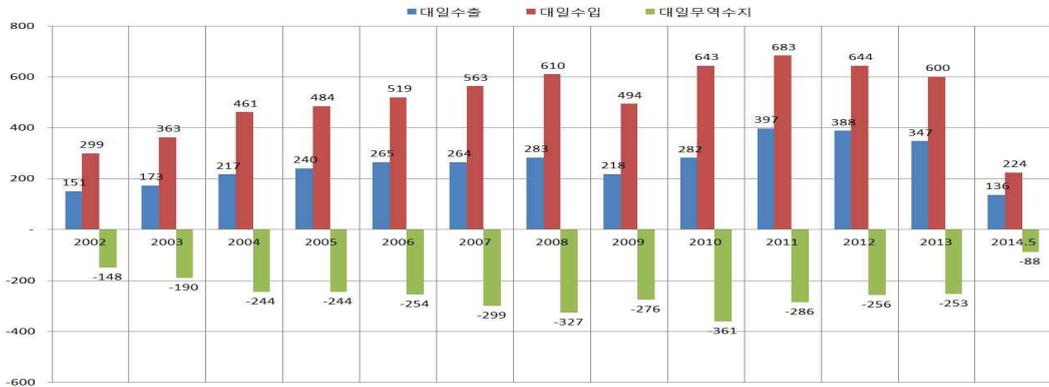
(사)한일경제협회 전 상근부회장 (1985.7~1994.2)
전 삼성물산 부사장, 전 포항제철 이사
고(故) 주영석 부회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별세일시 : 2014년 6월 20일 (금)

빈 소 :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렌스시 103 한인성당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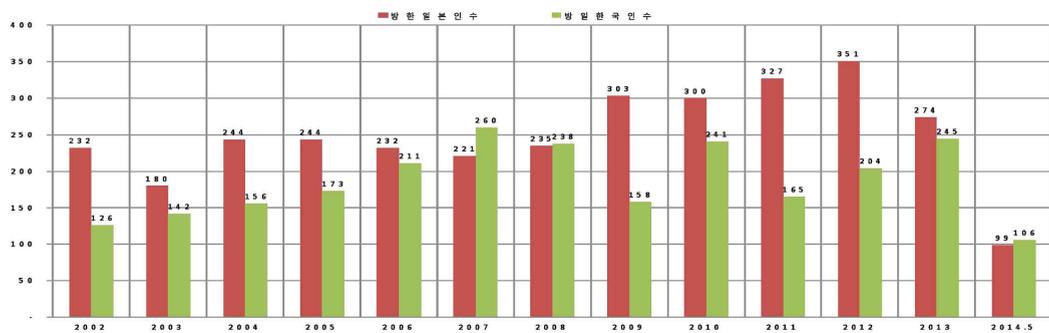
유 가 족 : 이성실여사, 유식, 흥식, 인식<미국거주>

한일 교역 현황 : 對 일본 연도별 수출입 실적(02~14.05)/(단위 : 억불)



구 분	총수출 (A)	총수입 (B)	총교역액 (C=A+B)	대일수출 (D)	대일수입 (E)	총대일교역 (F=D+E)	대일수출비중 (G=D/A)	대일수입비중 (H=E/B)	대일무역수지 (I=D-E)
2002	1,625	1,521	3,146	151	299	450	9.3%	19.6%	-148
2003	1,938	1,788	3,726	173	363	536	8.9%	20.3%	-190
2004	2,538	2,245	4,783	217	461	678	8.5%	20.6%	-244
2005	2,844	2,612	5,456	240	484	724	8.4%	18.5%	-244
2006	3,255	3,094	6,348	265	519	785	8.2%	16.8%	-254
2007	3,715	3,568	7,283	264	563	826	7.1%	15.8%	-299
2008	4,220	4,353	8,573	283	610	891	6.7%	14.0%	-327
2009	3,635	3,231	6,866	218	494	712	6.0%	15.3%	-276
2010	4,664	4,252	8,916	282	643	925	6.4%	15.1%	-361
2011	5,552	5,244	10,796	397	683	1,080	7.2%	13.0%	-286
2012	5,479	5,196	10,675	388	644	1,032	7.1%	12.4%	-256
2013	5,596	5,156	10,752	347	600	947	6.2%	11.6%	-253
2014.5	2,357	2,207	4,564	136	224	360	5.8%	10.1%	-88

한일 인적교류 현황 : 對일본 연도별 출입국 실적(02~14.05)/(단위 : 만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5
방한 일본인수	232.1	180.3	244.3	244.0	232.0	221.6	235.8	303.2	300.4	327.0	351.8	274.7	99.0
방일 한국인수	126.6	142.7	156.9	173.9	211.7	260.1	238.3	158.7	241.5	165.8	204.4	245.6	106.8
계	358.7	323.0	401.2	417.9	443.7	481.7	474.1	461.9	541.9	492.8	556.2	520.3	205.8

(출처) 한국무역협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일본정부관광국(JNTO)

회원가입안내

1. 개요

한일경제협회(www.kje.or.kr)는 자매기관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www.kjc.or.kr)과 함께 한일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시키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정립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한일 양국 경제인의 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이해와 상호신뢰 구축은 물론 활발한 인적교류 등 민간에 의한 경제외교 활동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 회원 자격

우리협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한일 양국의 경제적 이해와 협조 및 친선을 위하여 유대를 갖고 있거나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국내외 개인, 법인 및 단체

3. 회원가입 및 회비

- ☐ 회원가입 : 소정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회비와 연간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 ☐ 회비구분

구 분	전년도 매출액기준	입회비	년회비
일반회원사	50억 이상	10만원	80만원
	50억 미만	10만원	20만원

- ☐ 입금계좌 : 우리은행 424-04-104432 한일경제협회

4. 중점사업

- 한일경제인회의 사업(년 1회)
- 한일신산업무역회의(년 1회)
- 한일 및 한중일 지역간 교류협력 사업(한·큐슈, 한·호쿠리쿠, 환황해경제교류)
- 한일청소년(고교생교류캠프)교류 사업
- 기타 한일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사업(한일통상포럼, 업종별 교류회 등)
- 회원사 간담회(주일대사초청간담회, SJC와의 간담회, 친선교류활동 등)

5. 회원사 특전

- 협회주최 및 자매기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연구조사, 보고서 제공
- 협회 소식지 및 일본정보[지식리포트] 제공
- 협회 보유자료 열람
- 일본기업 소개·비즈니스 정보·신기술동향 등의 일본기업정보 제공 (수시)
- 비즈니스 상담회, 기술지도, 일본연수 사업 참여

6. 문의처

(우)135-8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31길 18-4(논현동) 한일재단B/D 4층
김정호 부장 (TEL: 02-3014-9886 E-mail : jhkim@kje.or.kr FAX : 02-3014-9899)

